

## 경희대 인문계열

인문계열 논술 Theory	
1) 1번 문제 풀이	
1-1) 1번 문제 유형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2016 모의 인문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2015 인문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욕망'을 핵심어로 하여 요약하고, 그 욕망의 유사성을 논하시오.
2015 모의 인문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하시오.
2014 인문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하시오.
-> 두 개의 제시문을 각각 요약하고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문제	
1-2) 1번 문제 공략법	
STEP1) 문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이다.	
①	[가]의 내용을 요약
②	[나]의 내용을 요약
③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요약
STEP2) 이를 문제가 요구하는 분량인 600자를 바탕으로 구체화시켜보자.	
①	[가]의 내용을 요약 [200자]
②	[나]의 내용을 요약 [200자]
③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요약 [200자]
STEP3) 서강대 발표기준에 의하면 수험생의 평균 문장길이는 65~70자이다.	
①	[가]의 내용을 요약 [200자 - 3문장]
②	[나]의 내용을 요약 [200자 - 3문장]
③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요약 [200자 - 3문장]
STEP4) 예시답안을 기준으로 한 모범답안 골격의 완성!	
	Critical Point
①	① [항상 예시답안에서 나오는 한 문장 형태의 서론을 추가] 일반론적인 서술을 통해 한 문장으로 서론을 작성하시오.
①	② [가]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③ 그에 대한 근거로 [가]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④ 그에 대한 근거로 [가]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②	① [나]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②	그에 대한 근거로 [나]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③	그에 대한 근거로 [나]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③	①	[가]와 [나]의 유사점 혹은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②	[가]가 왜 [나]와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가지는가에 대한 근거로서 [가]의 제시문의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③	[나]가 왜 [가]와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가지는가에 대한 근거로서 [나]의 제시문의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STEP5) 그렇다면 실제 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

2016 경희대 모의 인문계열 논술 1번 문제[2015년 7월 20일 시행]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제시문 (가)**

“그런데 정화(淨化)는 아까부터 논의 속에서 이야기되었던 바로 그것이 된 셈이 아닌가? 최대한 몸으로부터 영혼을 분리하고, 영혼이 모든 면에서 몸으로부터 떨어져서 그것 자체로만 한데 모이고 서로 뭉치도록,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마치 사슬로부터 풀려나듯 몸으로부터 풀려나 가능한 한 오직 그 자체로만 살아가도록 길들이는 것 말일세.”

“물론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죽음[공통 주제어]이라 불리는 게 아닌가? 몸으로부터의 영혼의 풀려남과 분리.”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려나게 하기를 늘 열망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그리고 오로지 올바르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뿐이고, 철학자들이 수행하는 바로 이것이네. 몸으로부터 영혼의 풀려남과 분리. 그렇지 않은가?”

“그래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살면서는 죽어 있는 것과 최대한 가까운 상태로 사는 준비를 하다가 막상 그것이 자신에게 닥치자 노여워한다면,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아니겠습니까?”

“그럼 심미아스, 실제로 올바르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고, 죽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덜 두려운 일이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게. 만일 그들이 몸과는 모든 점에서 반목하면서 영혼 자체를 그것 자체로 가지기를 열망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자 겁을 내고 노여워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불합리한 일이 아니겠나 말일세. 그곳에 다다르면 일생을 통해 사랑해 온 것을-그들은 현명함을 사랑하지-언게 되고, 서로 반목하며 함께 지내온 것으로부터 해방될 희망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 그들이 기쁘게 가지 않는다면 말일세. 연인들과 아내들과 아들들이 죽었을 때 실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데스로 가려 했네. 그곳에서 그들이 열망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희망에 이끌려서 말일세.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로 현명함을 열

망하고, 동일한 희망, 즉 하데스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현명함과 제대로 만나지 못하리라는 확고한 희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자 노여워하고 그곳에 즐거이 가지 않을 거라고? 벗이어, 진정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그에게는 그곳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현명함과 순수하게 만나지 못하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테니 말일세. 그런데 만일 사정이 이러하다면, 방금 내가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매우 불합리하지 않겠나” 그가 말했습니다.

**제시문 (나)**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 물론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라 ‘놀라운’ 기계다. 우리는 사랑하고, 꿈꾸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기계다.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기계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기계다. **그리고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죽음[공통 주제어]**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가 아니다. **죽음은 결국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다.** 모든 기계는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인간이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니 부디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삶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축복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좋은 일이다. 오래 사는 것이 전체적으로 내게 좋은 것인 한 죽음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너무나 일찍 찾아온다. 하지만 영생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실 영생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를 거대한 미스터리,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위협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코 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는 ‘부적절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죽는다는 사실에 슬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기회를 부여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행운인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 경희대 인문계열 1번 문제는 공통점과 차이점[각 제시문의 요지]만 파악하면 끝난다.

공통점	차이점	
각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어를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의 예에서는 ‘죽음’이 공통단어였다.	[가]와 [나]의 주장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각각 밝히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차이점이 된다.	
	<b>[가]의 주장</b> 죽음을 통해 육체의 욕망으로 점철되었던 인간이 마침내 육체로부터 풀려나 영혼의 자유를 얻고 참된 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b>[나]의 주장</b> 인간은 기계와 같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곧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해진다.

① 한 문장 형태의 서론 추가하기 **[공통점 활용]**

<b>서론 형태</b>	‘A’란 ~인데, A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태도는 상이할 수 있다.’ [공통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후 관점에 따라 공통 단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 완벽!]
--------------	---

<b>A?</b>	각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어	
죽음은 현세와 내세가 구분되는 시점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현재의 삶과 미지의 내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② 각 제시문 요약 [위에서 정리한 각 제시문의 주장]		
[가]	죽음을 통해 육체의 욕망으로 점철되었던 인간이 마침내 육체로부터 풀려나 영혼의 자유를 얻고 참된 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나]	인간은 기계와 같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곧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해진다.	
-> 이제 여기에 제시문의 내용으로 살만 조금 붙이면 된다!		
[가] 내용 요약 부분 완성		
->	제시문 [가]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이 죽음을 통하여 이 둘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은 육체의 욕망으로 점철되었던 인간이 마침내 육체로부터 풀려나 영혼의 자유를 얻고 참된 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라고 주장한다.	
[나] 내용 요약 부분 완성		
->	반면 제시문 [나]는 인간은 기계와 같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면 모든 것들이 소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죽음은 곧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이다.	
③ 각 제시문 비교		
[가]	죽음을 통해 육체의 욕망으로 점철되었던 인간이 마침내 육체로부터 풀려나 영혼의 자유를 얻고 참된 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나]	인간은 기계와 같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곧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해진다.	
-> 유사성 혹은 차이점이 있다는 주장을 한 후 위의 각 제시문의 주장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근거를 각 제시문 당 한 문장씩으로 제시하면 주장+근거[가]+근거[나]로서 3문장이 완성된다!		
주장	제시문 [가]와 [나]는 상이한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근거[가]	제시문 [가]는 인간은 죽음을 통해 육체에 갇혀 이르지 못했던,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근거[나]	반면, 제시문 [나]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 이전의 현세만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중한 기회인데, 필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죽음의 특성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경희대 예시답안 [1+3/3/3]의 구조!		
①	①	Critical Point [항상 예시답안에서 나오는 한 문장 형태의 서론을 추가] 일반론적인 서술을 통해 한 문장으로 서론을 작성하시오.

	->	죽음은 현세와 내세가 구분되는 시점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현재의 삶과 미지의 내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②	[가]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③	그에 대한 근거로 [가]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④	그에 대한 근거로 [가]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	제시문 [가]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이 죽음을 통하여 이 둘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은 육체의 욕망으로 점철되었던 인간이 마침내 육체로부터 풀려나 영혼의 자유를 얻고 참된 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라고 주장한다.
②	①	[나]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	반면 제시문 [나]는 인간은 기계와 같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되면 모든 것들이 소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②	그에 대한 근거로 [나]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③	그에 대한 근거로 [나]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	따라서 죽음은 곧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이다.
③	①	[가]와 [나]의 유사점 혹은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	제시문 [가]와 [나]는 상이한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②	[가]가 왜 [나]와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가지는가에 대한 근거로서 [가]의 제시문의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	제시문 [가]는 인간은 죽음을 통해 육체에 간혀 이르지 못했던,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③	[나]가 왜 [가]와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가지는가에 대한 근거로서 [나]의 제시문의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	반면, 제시문 [나]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 이전의 현세만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중한 기회인데, 필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죽음의 특성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b>2) 2번 문제 풀이</b>	
<b>2-1) 2번 문제 유형 [1,100자 이상 ~ 1,200자 이하 : 배점 70점]</b>	
2016 모의 인문	제시문 [바]가 함축하는 의미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관점을 설명하시오.
2015 인문	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
2015 모의 인문	제시문 [바]를 기반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공감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논술하시오.
2014 인문	제시문 [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주인공, [다]의 화자, [라]의 '현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을 조건화하여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 개의 제시문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문제	
<b>2-2) 1번 문제 공략법</b>	
<b>STEP1) 문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이다.</b>	
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를 조건화하여 요약하시오.
②	제시문 [다]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③	제시문 [라]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④	제시문 [마]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b>STEP2) 이를 문제가 요구하는 분량인 1200자를 바탕으로 구체화시켜보자.</b>	
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를 조건화하여 요약하시오. [300자]
②	제시문 [다]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300자]
③	제시문 [라]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300자]
④	제시문 [마]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300자]
<b>STEP3) 서강대 발표기준에 의하면 수험생의 평균 문장길이는 65~70자이다.</b>	
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를 조건화하여 요약하시오. [300자 - 4문장]
②	제시문 [다]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300자 - 4문장]
③	제시문 [라]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300자 - 4문장]
④	제시문 [마]의 내용을 서술하고, 제시문 [바]의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시오. [300자 - 4문장]
<b>STEP4) 예시답안을 기준으로 한 모범답안 골격의 완성!</b>	
<b>경희대 예시답안 [4/4+1/4/4]의 구조!</b>	

①	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 하되, 뒤에서 각 제시문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바]의 내용을 조건화시오.
	②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 하되, 뒤에서 각 제시문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바]의 내용을 조건화시오.
	③	그에 대한 근거로 [바]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④	그에 대한 근거로 [바]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②		Critical Point
	①	[항상 예시답안에서 나오는 '따라서 [바]를 바탕으로 [다], [라], [마]를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추가]
	②	[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③	그에 대한 근거로 [다]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④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다]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③	⑤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다]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①	[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②	그에 대한 근거로 [라]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③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라]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④	④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라]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①	[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②	그에 대한 근거로 [마]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③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마]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④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마]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b>STEP5) 그렇다면 실제 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b>		
2016 경희대 모의 인문계열 논술 2번 문제 [2015년 7월 20일 시행]		
제시문 [바]가 함축하는 의미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관점을 설명하시오. [1,100자 이상 ~ 1,200자 이하 : 배점 70점]		
<b>제시문 (바)</b>		
<b>나 하늘로 돌아가리라</b>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b>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b>		

**제시문 (다)**

포드 핀토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소형 자동차다. 그런데 불행히도 다른 차가 이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연료탱크가 쉽게 폭발했다. 핀토가 화염에 휩싸이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500명이 넘었고,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결국 화상을 입은 한 차주가 자동차의 설계 결함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가스탱크의 폭발 위험성을 포드 기술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회사 경영자들이 비용·편익 분석을 해본 결과, 가스탱크를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부착하려면 차 한 대당 11달러가 드는 반면 그에 따른 이익(목숨을 구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등)은 그보다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포드 사는 가스탱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얻는 이익을 계산해 보았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180명이 죽고 180명이 화상을 입으리라고 추정했다. 그런 다음, 각 경우를 돈으로 환산했는데, 사망이 20만 달러, 화상이 6만 7000달러였다. 여기에 불에 탈 수 있는 핀토 자동차 대수와 가치를 추가해, 차를 안전하게 고쳤을 때 얻는 전체 이익을 계산해보니 4950만 달러가 나왔다. 하지만 자동차 1250만대에 모두 11달러짜리 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은 총 1억 3750만 달러다. 결국 회사는 연료탱크를 고치는 비용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시문 (라)**

머리 위에 향로를 이고, 두 손을 합장한, 고개와 등이 앞으로 좀 수그러진, 입도 조금 헤벌어진, 그것은 불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없이 초라한, 그러면서도 무언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을 주는 등신대(等身大)의 결가부좌상(結跏趺坐像)이었다. 그렇게 정연하고 단아하게 석대를 쌓고 추녀와 현판에 금물을 입힌 금불각 속에 안치되어 있음직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엄성 있는 그러한 불상과는 하늘과 땅 사이라고나 할까. 너무도 거리가 먼, 어이가 없는, 허리도 제대로 펴고 앉지 못한, 머리 위에 조그만 향로를 얹은 채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오뇌와 비원(悲願)이 서린 듯한, 그러면서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랄까 아픔 같은 것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콕 움켜잡는 듯한, 일찍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그러한 어떤 가부좌상이었다. (중략) 소신공양으로 성불을 했다면 부처님이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부처님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모든 불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거룩하고 원만하고 평화스러운 상호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가까운 부처님다음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거룩하고 부드럽고 평화스러운 맛은 지녔어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금불각의 가부좌상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벗어나지 못한 고뇌와 비원이 서린 듯한 얼굴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떠한 대각(大覺)보다도 그렇게 영험이 많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제시문 (마)**

다음 날 아침 일찍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곳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p>“자살이지요”</p> <p>“물론 그럴겠죠.”</p> <p>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p> <p>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갔다.</p> <p>“나는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p> <p>“난 짐작도 못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다.</p> <p>“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p> <p>“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p> <p>“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p> <p>“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p> <p><b>“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b></p> <p><b>“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더니까요. 씨팔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b></p> <p>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춰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춰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p> <p>“김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p> <p>“난 분명히 그렇습니다.”</p> <p>“나두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갸웃했다.</p> <p>“두려워집니다.”</p> <p>“뭐가요” 내가 물었다.</p> <p>“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p> <p>“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p> <p><b>“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b></p> <p><b>“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b>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p> <p><b>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안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b></p>
<p>※ 경희대 인문계열 2번 문제는 [바]의 기준만 파악하면 끝난다.</p>
<p>경희대는 절대 다면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순히 평가의 근거가 되는 제시문 [바]가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가를 딱 하나의 기준으로 파악하면 끝난다!</p>
<p><b>[바]의 내용</b></p>
<p>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p>

<p>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p>	
<b>긍정</b>	<b>부정</b>
삶의 아름다움을 ‘소풍’으로 인식하거나, 죽음에 대해 초연한 삶의 태도를 드러낼 때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죽음에 대해 초연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지 못할 때
<b>① 기준으로 각 제시문 평가</b>	
<b>[다]</b>	인간의 목숨까지 돈으로 환산되는 각박한 자본의 논리
<b>평가</b>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죽음에 대해 초연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지 못함 <b>[부정적]</b>
<b>[라]</b>	죽음(소신공양)을 통해 세속적 삶의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인물의 모습
<b>평가</b>	죽음에 대해 초연한 삶의 태도를 드러냄 <b>[긍정적]</b>
<b>[마]</b>	삶에 절망하여 마침내 자살하고 마는 주변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드러냄
<b>평가</b>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죽음에 대해 초연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지 못함 <b>[부정적]</b>
<b>② 각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의 구체성 더하기!</b>	
<b>[다]</b>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의 목숨까지 돈으로 환산되는 각박한 자본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죽음은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는 커녕 회사의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 경영자들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의 목숨 값(죽음)이 20만 달러로 환산되고 있는 것이다.
<b>평가</b>	따라서 죽음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 현실적 삶의 아름다움을 성찰하고 있는 제시문 [바]의 관점과, 죽음에까지 값을 매겨 이윤 추구를 궁극적 기준으로 삼는 제시문 [다]의 관점은 선명하게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b>[라]</b>	제시문 [라]는 죽음(소신공양)을 통해 세속적 삶의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죽음은 인간적 삶의 고통을 끌어안는 주체적 결단이자, 인간 존재의 고뇌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초월적 행위이다.
<b>평가</b>	제시문 [바]의 시적 화자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세속적 삶을 체념·달관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제시문 [라]의 인물은 자기희생을 통해 인간 삶의 존재론적 고뇌와 슬픔을 구원하려는 실천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마]</b>	제시문 [마]는 삶에 절망하여 마침내 자살하고 마는 주변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두 젊은이는 타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루될 것을 염려해서 서둘러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가	<p>눈앞에서 벌어진 타인의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한 화자들의 모습은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실적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소통과 공감이 부재한 채 파편화된 우리시대 자화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p>
<p><b>경희대 예시답안</b></p>	
①	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
	② 하되, 뒤에서 각 제시문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바]의 내용을 조건화시오.
	-> 제시문 [바]의 시적 화자는 죽음을 귀천(歸天), 즉 본원적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위로 인식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 죽음은 세상의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달관에 이르게 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③ 그에 대한 근거로 [바]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④ -> 인간의 삶은 하늘에서 잠시 지상으로 내려온 여행에 불과하며, 죽음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귀향인 셈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시적 화자는 현실적 삶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②	Critical Point
	① [항상 예시답안에서 나오는 '따라서 [바]를 바탕으로 [다], [라], [마]를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추가]
	② [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③ 그에 대한 근거로 [다]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 따라서 제시문 [바]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의 목숨까지 돈으로 환산되는 각박한 자본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죽음은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는커녕 회사의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 경영자들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의 목숨 값(죽음)이 20만 달러로 환산되고 있는 것이다.
	④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다]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⑤ -> 따라서 죽음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 현실적 삶의 아름다움을 성찰하고 있는 제시문 [바]의 관점과, 죽음에까지 값을 매겨 이윤 추구를 궁극적 기준으로 삼는 제시문 [다]의 관점은 선명하게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③	① [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② 그에 대한 근거로 [라]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 제시문 [라]는 죽음(소신공양)을 통해 세속적 삶의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죽음은 인간적 삶의 고통을 끌어안는 주체적 결단이자, 인간 존재의 고뇌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초월적 행위이다.
	③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라]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④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라]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	제시문 [바]의 시적 화자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세속적 삶을 체념·달관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제시문 [라]의 인물은 자기희생을 통해 인간 삶의 존재론적 고뇌와 슬픔을 구원하려는 실천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④	①	[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시오.
	②	그에 대한 근거로 [마]의 제시문 내용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시오.
	->	제시문 [마]는 삶에 절망하여 마침내 자살하고 마는 주변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두 젊은이는 타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루될 것을 염려해서 서둘러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앞에서 조건화한 [바]의 기준을 토대로 [마]의 내용을 평가하시오.
	->	눈앞에서 벌어진 타인의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한 화자들의 모습은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실적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볼 때, 소통과 공감이 부재한 채 파편화된 우리시대 자화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	---

**제시문 [가]**

현대인들 중에는 마치 자기가 수면으로 떠오를 수 없는 난파선의 조난자인 듯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날 사물이 변화하는 속도 그리고 그 진행의 격렬함과 에너지는 고풍(古風)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 불안이 그 사람의 맥박 속도와 시대의 높이 차이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한편, 생의 양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높이와 과거 시대의 높이와의 관계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다. 이 관계란 무엇일까?

어떤 시대의 인간이 단순히 지나간 시대라고 해서 과거가 항상 그의 시대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고 느낀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일 것이다. 스페인의 저명한 시인 호르헤 만리케가 “지나간 과거는 모두 지금보다는 우수하다.”고 느끼게 된 것을 상기해 보면 납득이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진실은 아니다. 모든 시대가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열등하다고 느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시대가 기억에 남는 모든 과거의 시대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다. 역사상 각 시대는 생의 높이라는 그 불가사의한 현상을 앞에 놓고 갖가지 느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상가나 역사가가 이토록 명백하게 실제적인 사실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서는 매우 의아하게 느껴진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가]는 시대적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비교 우위적 관점에서 현재 시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자는 모든 시대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와 비교해서 우열을 평가하기 보다는 각 시대가 지닌 고유의 가치를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시문 [나]**

어떤 유럽의 아이를 중국인 가족에게 맡기면, 그 아이는 피부는 희지만 중국어를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피부색의 형성은 생물학적인 유전이며, 언어는 인간의 두뇌를 매개로 하여 전승되는 사회적 획득물이다. 유전에 의한 진화는 몇 천 년 또는 몇 백만 년을 단위로 하여 측정되어야만 한다. 역사가 쓰이기 시작한 이래, 인간에게 중요한 생물학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획득을 통한 진보는 세대를 단위로 하여 측정될 수 있다.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과거세대의 경험을 축적하여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데에 있다. 5,000년 전의 조상보다 현대인의 두뇌가 더 크지도 않으며 타고난 사고능력이 더 큰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인류는 그동안 여러 세대의 경험을 습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경험에 합체시킴으로써 사고의 유효성을 몇 배나 증가시켜 왔다. 생물학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획득형질의 전승이야말로 사회적 진보의 바로 그 기초인 것이다. 진보란 획득된 기술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승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b>	
제시문 [나]는 오늘날 인간의 잠재 능력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생물학적인 면에서 별 차이는 없지만, 과거 세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한 세대에서 학습된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초를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b>[가]와 [나]의 차이점</b>	
제시문 [가]가 현재 시대가 지니는 고유의 가치를 과거 시대와 비교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는 현재 시대는 과거 세대가 축적한 경험에 자신의 경험을 합치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시대를 만들어 왔다고 강조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b>답안 작성</b>	
<b>1문단</b>	오늘날의 인류사회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진보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제시문 [가]는 시대적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대인은 비교 우위적 관점에서 현재 시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자는 모든 시대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와 비교해서 우열을 평가하기 보다는 각 시대가 지닌 고유의 가치를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b>2문단</b>	이에 반해 제시문 [나]는 오늘날 인간의 잠재 능력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생물학적인 면에서 별 차이는 없지만, 과거 세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말한다. 즉, 인간은 한 세대에서 학습된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초를 이루어 왔다는 것이다.
<b>3문단</b>	제시문 [가]가 현재 시대가 지니는 고유의 가치를 과거 시대와 비교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는 현재 시대는 과거 세대가 축적한 경험에 자신의 경험을 합치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시대를 만들어 왔다고 강조하는 데 차이가 있다.

[문제 2]	<p>제시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설명하시오.</p> <p>[1,100자 이상 ~ 1,200자 이하 : 배점 70점]</p>
--------	--

<p><b>제시문 [바]</b></p> <p>왜 세상은 끊임없이 위기로 비틀거리는 걸까?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던가? 예전에 더 나빴던가? 아니면 더 좋았던가?</p> <p><b>티베트 고원과 고대 문화의 고장 라다크(인도 북동부)에서 보낸 16년이라는 시간은 위의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을 극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나는 그동안 알고 있던 산업문화의 모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b></p> <p>라다크에 오기 전, 나는 진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았다. 공원을 가로질러 새 도로가 나거나 200년 된 교회 옆에 철제와 유리로 된 건물이 들어서거나 길모퉁이 가게 대신 현대식 대형 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현대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고 숨 가쁘게 계속되는 것이라 느끼고 있었다. <b>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다크는 내게 미래를 향하는 길이 꼭 하나가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커다란 힘과 희망을 주었다.</b></p>	
<p><b>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b></p> <p>제시문 [바]의 저자는 고대문화가 살아 숨 쉬는 라다크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사회가 걸어온 산업문화의 길이 반드시 바람직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등과 같은 물질적 ‘진보’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성찰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p>	
<p><b>제시문 [다]</b></p> <p><b>사냥꾼은, 그가 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하기 전에 보편화되어 있었던 유형과는 달리, 전체적인 ‘사물의 균형’에 관해서는 신경을 덜 쓴다. 사냥꾼이 추진하는 유일한 일은 자루를 최대한 채워 줄 만큼 큰 사냥감을 ‘죽이는 것’이다.</b>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사냥이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숲에 사냥감이 어슬렁거리도록 그것을 다시 채워 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사냥꾼은, 분별없이 사냥감을 마구 잡아 없앤 탓에 숲에서 사냥감이 고갈되면, 비교적 망가지지 않아 사냥감이 우글거리는 또 다른 숲으로 옮겨갈 수 있다. <b>아직은, 막연한 먼 미래에 사냥감이 남아 있는 숲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설혹 그렇더라도 급한 문제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자기가 걱정할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b> 그들은 그런 먼 미래의 전망이 결국은 이번 사냥이나 다음 사냥의 결과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한 명의 사냥꾼에 지나지 않는 나, 또는 많은 무리 중 한 무리의 사냥꾼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그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사하고 깊이 생각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p>	
<p><b>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b></p> <p>제시문 [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숲을 훼손하는 사냥꾼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은 당장의 사냥감을 얻는데 급급해 숲의 먼 미래를 걱정할 겨를이 없으며, 아예 걱정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제시문 [바]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모습, 즉 물질적 ‘진보’를 유일한 삶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p>	

따라서 현재적 삶의 욕망에 매몰되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있는 사냥꾼의 삶의 태도는, 물질적 풍요 너머에서 미래를 향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 [라]**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라]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세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외된 자들의 슬픔과 연대하여, 물질적 성취를 추구하는 사회가 야기하는 몰인정한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는 공감과 연대에 바탕한 공동체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이기심과 무관심, 그리고 경쟁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바]가 추구하는 대안적 삶의 가능성과 통합니다.

**제시문 [마]**

해가 뜨면 사람들은 일을 시작한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다. 뛰어다니는 것은 개들뿐이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잔다. 쿨쿨 잔다. 여러분이 잠든 이 시간에도 이웃면에서는 다수확 신품종의 벼 모종 보급을 비밀리에 착수, 내년의 수확 경쟁에서 한 발 앞서 가면 어찌지요? 라고 물어보아야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에서 앞선 이웃면이 돈으로 국내 최대, 국내 최고의 농지형 테마파크를 국내 최초로 건립해 버리면 어찌지요? 라고 해 봐야 그러거나 말거나다. 이곳은 무엇이 들어와도 국내 최후이며, 삶의 분주함으로 따지자면 국내 최저이며, 그 어귀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 동네 사우나탕 정도의 규모를 지닌 국내 최소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할 만큼의 일을 하고, 먹을 만큼의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것이다. 글로 정리하고 보니 마치 삼미 슈퍼스타즈의 야구 같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렇게, 웃고, 떠들고, 놀았을 뿐인데도 그 일주일의 전지훈련에서 우



리는 점점 삼미 슈퍼스타즈의 야구를 이해하고 있었다. 즉 어떻게 달려야 할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떤 공을 던져야 할지, 어떤 공을 골라야 할지, 어떤 공을 쳐야 할지를 어렵קות이 느끼게 된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일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어떤 코스를 만들어도 100미터가 나오지 않았다. 어렵쇼, 80미터고, 70미터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브론토의 처남은 50미터 직선 코스를 정해 50미터 달리기를 실시했다. 실로 50미터도 빠듯한 백사장이었다. 첫 주자는 조르바였는데 조르바는 난데없이 “이봐, 인간은 원래 바다에서 왔다는 것 아냐?”라는 말을 하더니 그냥 백사장에 주저앉아 버렸다. 두 번째 주자는 브론토였는데 두 딸의 손을 잡고 함께 뛰었기 때문에 기록이라고 볼 수 없는 기록을 냈고, 세 번째는 눈이 큰 문하생이었는데 얼마나 운동 신경이 둔한지 마치 프라모델이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그 다음은 줄 줄이 <주종족>들의 차례였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 달리던 도중에 모두 바닷속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은 안경잡이 괴소년이었는데 정말로 스프린터 같은 자세로 스타트 라인에 서서, 정말로 스프린터 같은 동작으로 스타트를 한 다음, 19초의 기록으로 진지하게 골인했다.

“전력으로 똥 거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브론토의 처남이 물어보자 왜 못 믿느냐는 표정으로 안경을 까닥이며 “네.”라고 대답했다. 결국 코치도 진이 빠졌고, 또 다음 주자는 조성훈이었는데 마침 똥을 누는 중이기도 해서 50미터 달리기는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모두가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의 탓을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으로 돌렸다. 그렇게, 점점 더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이해해 가고 있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였고,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였다. 비록 윤희론자가 아닐지언정 나는 그 일주일의 어느 어귀쯤에서 - 지금의 삶이 무언가 본리그를 앞두고서 행하는 일종의 전지훈련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전지훈련의 어느 어귀쯤에서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인생의 숙제는 따로 있었다. 나는 비로소 그 숙제가 어떤 것인지 어렵קות이 느낄 수 있었고, 남아 있는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마]는 물질적 가치와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의 이면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삼천포에서 웃고, 떠들고, 놀면서 발견한 삶의 지혜는 현대화된 기술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웃 동네의 모습, 즉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와는 이질적입니다. 소박한 이들의 일상은 마치 삼미 슈퍼스타즈와 같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과 중심의 경쟁사회의 모습을 성찰하는 ‘아름다운’ 삶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즐기고 있는 제시문 [라]의 삶의 태도는, 성장과 경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산업사회의 모습을 성찰하며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제시문 [바]의 태도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안 작성**

<b>1문단</b>	제시문 [바]의 저자는 고대문화가 살아 숨쉬는 라다크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 사회가 걸어온 산업문화의 길이 반드시 바람직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는
------------	---

	<p>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도로를 건설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등과 같은 물질적 '진보'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성찰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p>
2문단	<p>제시문 [바]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제시문 [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숲을 훼손하는 사냥꾼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사냥꾼은 당장의 사냥감을 얻는데 급급해 숲의 먼 미래를 걱정할 겨를이 없으며, 아예 걱정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이는 제시문 [바]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는 모습, 즉 물질적 '진보'를 유일한 삶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와 닮아 있다. 따라서 현재적 삶의 욕망에 매몰되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있는 사냥꾼의 삶의 태도는, 물질적 풍요 너머에서 미래를 향한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제시문 [바]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p>
3문단	<p>제시문 [라]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세태를 형상화하고 있다. 저자는 소외된 자들의 슬픔과 연대하여, 물질적 성취를 추구하는 사회가 야기하는 몰인정한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공감과 연대에 바탕한 공동체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이기심과 무관심, 그리고 경쟁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바]가 추구하는 대안적 삶의 가능성과 통한다.</p>
4문단	<p>제시문 [마]는 물질적 가치와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의 이면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이 삼천포에서 웃고, 떠들고, 놀면서 발견한 삶의 지혜는 현대화된 기술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웃 동네의 모습, 즉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와는 이질적이다. 소박한 이들의 일상은 마치 삼미 슈퍼스타즈와 같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과 중심의 경쟁사회의 모습을 성찰하는 '아름다운' 삶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즐기고 있는 제시문 [라]의 삶의 태도는, 성장과 경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산업사회의 모습을 성찰하며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제시문 [바]의 태도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p>

<b>The 논술</b>	<b>2015 경희대 모의 인문</b>
---------------	-----------------------

[문제 1]	<p>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욕망'을 핵심어로 하여 요약하고, 그 욕망의 유사성을 논하시오.</p> <p>(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p>
--------	---

**제시문 [가]**

내가 라면을 처음 먹어 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다. 하룻길에 읍내 아버지 사무실에 갔다가 사환으로 있던 동네 형을 만났다. 아버지는 안 계셨고 형은 그때 마침 라면을 끓여 도시락과 함께 먹으려는 찰나였다. **꼬불꼬불한 국수 모양이 신기했고 납작한 양은 냄비, 거기서 풍겨 나오는 냄새는 읍내에서 십 리 길 가까운 시골에 사는 내게는 도시적이다 못해 이국적인 느낌마저 불러일으켰다.** (중략)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 밥을 짭 놀러 채운 도시락을 하나씩 들고 분식집에 모였다. 그러면 주인은 미리 껌질을 벗겨 놓은 라면을, 역시 미리 스프를 풀어 끓여 놓은 냄비 속에 빠뜨렸다. 그러고는 시큼하고 커다란 단무지 세 쪽 아니면 네 쪽을 접시에 담아 냄비와 함께 가져다주었다. 식탁에 있는 고춧가루를 살짝 풀어 라면과 함께 밥을 말아 먹으면 도서관에서의 한밤까지도 든든했다. 그때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하려고 라면을 먹는지, 라면을 먹으려고 도서관에 남아 있는지 잘 모를 지경이었다. (중략)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라면의 맛을 잃어버렸다.** 라면의 종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고 재료 역시 좋아졌지만 내가 찾는 그 맛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동안 나는 초겨울 빈 들에 구하기도 힘든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들고 나가 짬으로 라면을 끓여 먹어 보기도 했다. 또 어렵사리 분유 깡통을 구해 젓가락을 넣다가 합선 사고를 내기도 했고 납작한 양은 냄비를 찾아 시장을 헤맨 적도 있다. 여러 사람의 자문을 얻어 이것저것 실험도 해 보았다. 라면을 끓이는 냄비는 성냥불만 달아도 파르르 반응하도록 얇을수록 좋다. 스프는 미리 찬물에 풀고 그 물을 최대한 오래 끓인 뒤 면을 넣는데 뚜껑은 덮지 말고 면을 섞거나 뒤집지 않는다. 날씨는 추울수록 좋고 끓는 부분과 차가운 대기에 접촉하는 면이 공존해야 한다. 면을 넣은 뒤 최소한의 시간만 익히고 곧 먹어야 한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한겨울에 마당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도 있다. **그렇지만 그때와 같은 맛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전에 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나는 라면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을 먹고 싶어 하는 거라고. 무지개를 찾는 소년처럼 헛되이, 저 멀리에서 황홀하게 빛나는 그 시절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가]의 화자에게 라면이란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매개물입니다. 즉, 라면은 식욕을 채우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시골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의 향유에 대한 욕망을 반영합니다. 현재시점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도 어린 시절의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라면이 더 이상 희소가치가 없는 대중화된 상품이며 이제는 화자가 라면으로 상징되는 그 시절의 추억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문 [나]**

1930년대에 미국 일리노이 주 시서로 시에 소재하고 있던 웨스턴 일렉트릭 사의 호손공장에서는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공장의 조명을 바꾸는 실험으로 시작되었다. 전제되는 이론은 조명이 밝으면 노동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그 결과 생산성이 향상된다**

는 것이었다. 연구책임자였던 메이요와 그의 연구원들은 비용이 높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조명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호손의 노동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한 그룹은 조명의 조도를 높였고 차츰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다른 그룹의 조명은 평상시 조도 그대로였으나 역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전제되는 이론에 반하는 결과에 의아함을 느낀 연구팀은 이번에는 한 그룹의 조명의 조도를 과감하게 줄였다. 이번에도 이 그룹의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나중에는 이 그룹의 조명을 아주 칙칙할 정도로 낮추었다. 노동자들은 달빛 아래서 일하는 것처럼 압박을 느끼고 짜증을 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산성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때로는 증가하기까지 했다. 특별히 두 사람의 노동자가 실제 최소한의 조명을 받으면서 아주 작은 방에 고립되었다. 이번에도 그들의 생산성은 감소하지 않고 지난 수준을 유지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혼란을 느끼며 그동안 자신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의아해 하며 연구를 되돌아보았다. 연구원들은 경영자와 함께 연구기간 동안 관심을 기울여 두 노동자 그룹을 선발했었다. 연구를 위하여 선택된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경영자가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동료와 잘 지내고 싶다는 욕망, 이른바 인간의 결합 본능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해와 그럴싸한 경영원칙을 토대로 한 추론의 논리를 쉽게 능가한다.”고 연구책임자 메이요는 논평했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나]는 하나의 사회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실험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가정은 조도의 변경이 공장의 두 실험집단 사이에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양 집단 모두에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이 작업조건을 넘어 회사에 대한 소속감 및 동료와의 유대감을 향한 욕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가]와 [나]의 ‘욕망’ 간 유사성**

[가]와 [나]에서 라면의 맛과 조도라는 작업조건은 식욕과 생산성에 작용하는 욕망의 외형적인 대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라면의 맛이 아닌 잃어버린 유년기를 회고하고 있다는 [가]의 깨달음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외적 조건이 아닌 노동자들의 정체성이라는 [나]의 연구결과는, 욕망이 내면적인 욕구라는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 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답안 작성**

1문단	욕망은 인간이 어떤 대상을 갈구하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이끄는 동인이다. 제시문 [가]에서 라면은 식욕을 채우는 음식이라기보다 시골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의 향유에 대한 욕망을 반영한다. 현재시점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도 어린 시절의 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라면이 더 이상 희소가치가 없는 대중화된 상품이며 이제는 화자가 라면으로 상징되는 그 시절의 추억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문단	제시문 [나]에서는 조도의 변경이 공장의 두 실험집단 사이에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양 집단 모두에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이 작업조건을 넘어 회사에 대한 소속감 및 동료와의 유대감을 향한 욕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b>3문단</b>	[가]와 [나]에서 라면의 맛과 조도라는 작업조건은 식욕과 생산성에 작용하는 욕망의 외형적인 대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라면의 맛이 아닌 잃어버린 유년기를 회구하고 있다는 [가]의 깨달음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이 외적 조건이 아닌 노동자들의 정체성이라는 [나]의 연구결과는, 욕망이 내면적인 욕구라는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	---

[문제 2]	제시문 [바]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나타난 '욕망'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논술하십시오. (1,100자 이상 ~ 1,200자 이하 : 배점 70점)
--------	--

**제시문 [바]**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 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 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중략)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중략)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짐승이 사라져 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들에게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맺어져 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딛고 선 땅이 우리 조상의 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땅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 땅이 우리 종족의 삶들로 충만해 있다고 말해 주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들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라. 땅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땅 위에 닦친 일은 그 땅의 아들들에게도 닦칠 것이니, 그들이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 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바]는 자연의 모든 존재를 인간과 더불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살아가는 실체로 인식하는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모든 생명과 물질들은 유기적인 관계 아래 긴밀하게 맺어져 있으며,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들만의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연을 도구화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자연이 인간의 근원이고 모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생명체에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일체이며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과잉욕망을 갖지 않습니다.

**제시문 [다]**

**이렇게 소비를 유혹하는 광고에는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회 심리가 녹아있다. 광고가 표출하는 이미지에선 시대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가짜 욕구나 새로운 유행을 아예 광고가 만들어 내기도 한다.** 여기에는 광고에 숨어 있는 상품 미학이 한몫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남성용품 광고에 여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성용품 광고에 남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카메라 기법이 무너지고 새로운 카메라 기법의 사용이 일반화된다. 화면을 거꾸로 가로지르는 모델의 다양한 몸짓, 마치 무채 썰듯이 쪼개진 화면 분할, 러시아의 민속 인형이 인형 속에서 수십 개의 또 다른 인형을 토해 내듯이 화면에서 또 다른 화면이 계속 등장하는, 화면 속에서의 화면 탄생 기법, 또한 놀랄 만한 컴퓨터 그래픽의 위력과 충격적인 영화 기법이 과감하게 등장한다. 이제 수용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인정한다. 오늘날 이것은 하나의 문화 그 자

<p>체가 된 것이다. 수용자의 심리가 그렇게 바뀌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제 혁명적인 표현으로 가득 찬 상품 광고에 더 많은 헌금을 하게 되는 현상을 도외시하거나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다.</p>
<p><b>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b></p>
<p>제시문 [다]는 광고라는 미디어가 제품의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허구의 욕구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욕망을 지어내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상품판매업자들은 감각을 건드리는 이질적, 변칙적 그리고 현란한 광고기법을 개발하고 동원하여, 소비자들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자극하고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광고는 인간의 마음에 특정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주입하며, 소비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광고에 의해 세뇌되고 피동적으로 이끌려 간다. 광고를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초과하는 과잉욕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p>
<p><b>제시문 [라]</b></p>
<p><b>성창 비료 석교 공장은 연간 사십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b>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夜陰)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수천(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 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에 출어(出漁)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 나서 가스가 샐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 이로 미루어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뭍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p> <p>“아들놈이 낸 진정서가 틀림 없습니까.”</p> <p>노무과장에게 내가 물었다.</p> <p>“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지난 유월에 풍천 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었습니다. 풍천 화학 역시 야음을 틈타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물질을 대량으로 배출시켜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의 각종 새 삼백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더니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p> <p>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p>
<p><b>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b></p>
<p>제시문 [라]는 한 비료기업이 충분한 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정의 일부 분인 폐기물 처리과정을 개선하지 않고 다량의 공해물질을 지역의 하천으로 방출함으로써 어민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자연의 피조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보여 줍니다. 이 비료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는 적정이윤을 넘어 과도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가가 기업을 지역 및 환경과 더불어 상생하는 조직이 아닌, 본인의 경제적 과잉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할 때, 자연과 생명은 말살되고 물질적 욕구 추구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p>
<p><b>제시문 [마]</b></p>
<p><b>19세기에 이르러 비만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과식은 지각없음과 교양없음으로 간주되었고 뚱뚱한 남자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 시기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뚱뚱한 남자들은 하나같이 멍청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려졌다.</b>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였다.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자신 있게 굴곡을 드러내는 일은 18세기 회화에</p>

서나 가능한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날씬함을 선호하는 풍조는 더욱 가속화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뼈가 드러나는 깡마른 체형이 여성몸매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을 빼려는 여성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제약회사는 여성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종류의 살 빼는 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약으로 인해 빠진 것은 여성들의 살이라기보다는 은행의 잔액이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자 하는 열기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출판계에서는 건강한 삶과 식생활을 다룬 책들이 19세기 말부터 출간되었고 서적 진열대에서 그 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몸매 관련 사업이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발전한 것도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다. 특수음료와 저지방 식품을 시작으로 헬스클럽에 이르기까지 이 부문에서 기업 수준으로 사업을 일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는 날씬한 몸매를 지니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과시적인 경쟁이 끝없이 전개되고 있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마]는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이 스스로의 가치와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의해 학습된 논리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풍만한 육체의 모습은, 몸을 관리하는 방식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기획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됩니다. 다이어트와 이에 의해 날씬해진 육체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사회적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까지 문제가 없던 상태를 왜곡함으로써 과잉욕망을 창출하는 자본가의 부추김에 의해 인간은 욕망의 피지배자로 전락하고, 타자에 의해 형성된 욕망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안 작성**

<p><b>1문단</b></p>	<p>제시문 [바]는 자연의 모든 존재를 인간과 더불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살아가는 실체로 인식하는 가치관을 제시한다. 자연에 속한 모든 생명과 물질들은 유기적인 관계 아래 긴밀하게 맺어져 있으며,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들만의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연을 도구화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자연이 인간의 근원이고 모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생명체에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 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과 일체이며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과잉욕망을 갖지 않는다.</p>
<p><b>2문단</b></p>	<p>제시문 [다]는 광고라는 미디어가 제품의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허구의 욕구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욕망을 지어내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상품판매업자들은 감각을 건드리는 이질적, 변칙적 그리고 현란한 광고 기법을 개발하고 동원하여, 소비자들이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자극하고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광고는 인간의 마음에 특정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주입하며, 소비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광고에 의해 세뇌되고 피동적으로 이끌려 간다. 광고를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초과하는 과잉욕망이 발생하는 것이다.</p>
<p><b>3문단</b></p>	<p>제시문 [라]는 한 비료기업이 충분한 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정의 일부분인 폐기물 처리과정을 개선하지 않고 다량의 공해물질을 지역의 하천으로 방출함으로써 어민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자연의 피조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보여 준다. 이 비료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는 적정이윤을 넘어 과도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자본가가 기업을 지역 및 환경과 더불어</p>



	<p>상생하는 조직이 아닌, 본인의 경제적 과잉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할 때, 자연과 생명은 말살되고 물질적 욕구 추구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p>
<p><b>4문단</b></p>	<p>제시문 [마]는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이 스스로의 가치와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의해 학습된 논리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풍만한 육체의 모습은, 몸을 관리하는 방식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기획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된다. 다이어트와 이에 의해 날씬해진 육체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사회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 이전까지 문제가 없던 상태를 왜곡함으로써 과잉욕망을 창출하는 자본가의 부추김에 의해 인간은 욕망의 피지배자로 전락하고, 타자에 의해 형성된 욕망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p>

<b>The 논술</b>	<b>2014 경희대 인문</b>
---------------	--------------------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	--

**제시문 [가]**

지식인에게 망명자적인 추방은 관례적인 단계를 거쳐 '성공'에 이를 것을 목표로 하는 일상화된 삶의 이력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망명은 당신이 언제나 주변화되고 있음을 뜻하며, 지시된 길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 운명을 박탈이자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일종의 자유이자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의 관심을 끄는 것들을 행하는 발견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요구에 따라 설정되는 특수한 목표로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독특한 즐거움이 됩니다. 망명은 적응과 무조건적인 긍정, 정착이라는 보상에 유혹당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보상을 미끼로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받는 지식인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실제 이주민이나 추방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장벽들을 무릅쓰고 상상하며 탐구하는, 그리하여 언제나 중심화된 권위로부터 벗어나 주변을 향해 사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한 번도 관습과 편의를 넘어 여행해 본 적이 없는 마음들이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인이 망명자처럼 주변인이 되고 길들여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그가 권력자보다는 여행자에, 관습적인 것보다는 임시적이고 위험한 것에, 현 상황에서 주어진 권위보다는 혁신과 실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명자적인 지식인의 역할은 관습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대담무쌍한 행위에, 변화를 표상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전진해가는 일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가]는 한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 주변으로 망명한 지식인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망명자적 지식인은 사회의 관습과 그것이 제공하는 편의를 거부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주변인이 되어 불편하지만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향유합니다. 그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거나 지배 권력에 순응하는 대신 기존의 사회적 제약과 권위로부터 벗어나 끊임없이 현실을 극복하고 개혁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제시문 [나]**

사과 꽃이 피기 전 매우(梅雨)의 계절에 그는 밤늦도록 안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새웠다. 그 방에는 아버지와 형님, 누나 세사람이 읽어온 책들이 그득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책이 다 그의 것이었다. **아버지 책은 거의 모두가 오래된 일본 법률책이었다. 그것들은 준에게 아무 쓸모없는 휴지들이었다. 형과 누나의 책은 대부분 소설이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읽었다. 누나가 발일 속으로 망명한 것처럼 그는 책 속으로 망명하였다. 그가 제일 좋아하며 되풀이해서 읽은 책은 플란더즈의 개였다.** 아름다운 사랑, 개와 사람 간에 맺어진 우정과 믿음, 어른들의 쓸데없는 걸치레, 소년의 야망. 우연이 빚어낸 비극. 아름답고 착한 소년이 바르고 씩씩하게 살다가 쓰러지는 모습이 그를 감동시켰다. 집 없는 아이도 그를 기쁘게 했다. 그것은 플란더즈의 개와는 거꾸로 바르고 굳센 사람이 끝내는 이기고 마는 이야기였다. 레미 소년과 더불어 그는 프랑스 방방곡곡을 떠돌았다. 원숭이가 폐렴에 걸렸을 때 준은 몹시 슬펐다. 양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레미의 마음을 헤아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모험과 싸움의 이야기가 그의 어린 마음을 즐겁게 했다. 이런 쉬

운 이야기만 읽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두툼한 나나 를 몰래 읽고 있었다. 이 게으르고 방종한 여자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을까. 그는 나나가 벽난로 앞에서 맨몸뚱이가 되어 불을 쬐는 대목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다. 플란더즈의 개나 집 없는 아이와는 또 다른 세계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더 아찔하고 짜릿한 세계였다. 나나를 그는 몰래 읽었다. **어쩐지 남이 보는 데서 읽기는 계면쩍었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만은 그는 버젓이 그 책을 펴놓고 읽었다. 어머니는 한글과 한문을 조금 뜯어볼 뿐, 책을 못 읽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저 준이 아무 책이나 들고 있으면 공부하는 줄만 알고 몸이 상하겠다고 늘 말했다. 그럴 때 그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죄의식을 느꼈었다. 그것은 아마 그 자신 분명히 죄스럽다고 느낀 맨 처음 감정이었다. 죄의 기쁨 속에서도 이야기의 세계는 여전히 매력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거꾸로 선 세계, 물구나무 선 마음의 나라였다.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고 현실이 더 거짓말 같은 질서였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나]는 소설의 매력에 탐닉함으로써 허구의 세계로 망명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망명자적 독자에게 책 속의 세계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현실과 허구가 전도된 가상의 세계이자 실제 세계와 단절된 고립적이고 자족적인 공간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삶의 제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분투하는 대신, 소설가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현실’에 매료되어 그 속에 안주합니다.

**[가]와 [나]의 비교 - 공통점과 차이점**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둘 다 주어진 현실로부터 벗어나 떠나는 내적 ‘망명’을 다루지만, 각기 상이한 망명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전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후자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답안 작성**

1문단	제시문 [가]는 한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 주변으로 망명한 지식인의 모델을 제공한다. 이러한 망명자적 지식인은 사회의 관습과 그것이 제공하는 편의를 거부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주변인이 되어 불편하지만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향유한다. 그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거나 지배 권력에 순응하는 대신 기존의 사회적 제약과 권위로부터 벗어나 끊임없이 현실을 극복하고 개혁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2문단	이에 비해, 제시문 [나]는 소설의 매력에 탐닉함으로써 허구의 세계로 망명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망명자적 독자에게 책 속의 세계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현실과 허구가 전도된 가상의 세계이자 실제 세계와 단절된 고립적이고 자족적인 공간이다.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삶의 제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분투하는 대신, 소설가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현실’에 매료되어 그 속에 안주한다.
3문단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둘 다 주어진 현실로부터 벗어나 떠나는 내적 ‘망명’을 다루지만, 각기 상이한 망명의 태도를 보여준다. 즉 전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후자는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문제 2]	제시문 [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주인공, [다]의 화자, [라]의 '현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1101자 이상 ~ 1200자 이하 : 배점 70점]
--------	---

**제시문 [마]**

**나무는 자기 몸으로 /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 피는 나무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마]는 겨울을 견뎌 내며 꽃을 피우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암울한 시대적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지상에 굳건히 뿌리박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대지를 밀어 올려 기필코 자기 몸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

사과 꽃이 피기 전 매우(梅雨)의 계절에 그는 밤늦도록 안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새웠다. 그 방에는 아버지와 형님, 누나 세 사람이 읽어온 책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책이 다 그의 것이었다. 아버지 책은 거의 모두가 오래된 일본 법률책이었다. 그것들은 준에게 아무 쓸모없는 휴지들이었다. 형과 누나의 책은 대부분 소설이었다. 그는 딱치는 대로 읽었다. 누나가 발일 속으로 망명한 것처럼 그는 책 속으로 망명하였다. 그가 제일 좋아하며 되풀이해서 읽은 책은 플란더즈의 개였다. 아름다운 사랑, 개와 사람 간에 맺어진 우정과 믿음, 어른들의 쓸데없는 걸치레, 소년의 야망. 우연이 빚어낸 비극. 아름답고 착한 소년이 바르고 씩씩하게 살다가 쓰러지는 모습이 그를 감동시켰다. 집 없는 아이도 그를 기쁘게 했다. 그것은 플란더즈의 개 와는 거꾸로 바르고 굳센 사람이 끝내는 이기고 마는 이야기였다. 레미 소년과 더불어 그는 프랑스 방방곡곡을 떠돌았다. 원숭이가 폐렴에 걸렸을 때 준은 몹시 슬펐다. 양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레미의 마음을 헤아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모험과 싸움의 이야기가 그의 어린 마음을 즐겁게 했다. 이런 쉬운 이야기만 읽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두툼한 나나 를 몰래 읽고 있었다. 이 게으르고 방종한 여자의 이야기가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을까. 그는 나나가 벽난로 앞에서 맨몸 똥이가 되어 불을 쬐는 대목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다. 플란더즈의 개 나 집 없는 아이 와는 또 다른 세계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더 아찔하고 짜릿한 세계였다. 나나를 그는 몰래 읽었다. **어쩐지 남이 보는 데서 읽기는 계면쩍었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만은**

그는 버젓이 그 책을 펴놓고 읽었다. 어머니는 한글과 한문을 조금 뜯어볼 뿐, 책을 못 읽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저 준이 아무 책이나 들고 있으면 공부하는 줄만 알고 몸이 상하겠다고 늘 말했다. 그럴 때 그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죄의식을 느꼈었다. 그것은 아마 그 자신 분명히 죄스럽다고 느낀 맨 처음 감정이었다. 죄의 기쁨 속에서도 이야기의 세계는 여전히 매력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거꾸로 선 세계, 물구나무 선 마음의 나라였다.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고 현실이 더 거짓말 같은 질서였다.

#### 제시문 [다]

나는 필명이 적요(寂寥)이다.

평생 시 이외의 잡문을 쓴 바도 없고 텔런트처럼 이리저리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다. 천박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일수록 천박한 짓과 천박하지 않은 짓을 악착같이 나누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혁명을 꿈꾸던 젊은 날 배운 것이었다. 지식인들은 더욱 그러했다. 그들은 천박한 자신의 욕망을 갖은 말로 치장해 감추면서, 세상에 대고 두 개의 나팔을 불었다. 이를테면 천박한 자라고 판결을 내리는 자에겐 트럼펫을 불고, 천박하지 않은 자라고 판결을 내린 자에겐 우아하게 색소폰을 불어대는 식이다. 그런 자 중에서 자기 판결의 확고한 명분을 갖고 있는 자는 사실 드물다. 명분이야 난무하지만, 대개는 눈치로 때려잡는다. 좀 더 깊이 알거나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지점을 향해 색소폰을 불었다 하면 그제야 너도 나도 줄지어 집중포화로 포즈도 우아하게, 색소폰을 일제히 불어 쫓는다. 천박하다고 판결해, 트럼펫을 불어야 할 때는, 그 짓조차 오물을 뒤집어 쓸지 몰라 조심조심하다가 최종적으로, 침묵은 밀쳐도 본전이라는, 지식인 사회의 은밀한 불문율을 따라가고 마는 것도 그들이다. 문단이라고 뭐 예외가 아니다. **내가 필명을 적요라고 정할 때, 사실 나는 그런 지식인 사회의 구조를 명백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이 온갖 소음의 진원지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고백하거니와, 적요라는 필명은 그러므로 나의 여우같은 전략이자 그런 자들에게 대한 통렬한 발언이기도 했다. 내 전략은 유효했고, 시인으로 나는 성공했다. 성공하기까지 기다림이 좀 길었을 뿐이다.**

####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다]의 화자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뚜렷한 명분 없이 타자의 의견을 추종하는 지식인들의 천박한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식인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지식인 사회의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이른바 침묵을 전략으로 시류에 영합하는 현실추수적인 지식인에 불과합니다.

#### 제시문 [라]

근래 대중을 가르치며 돈을 버는 '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실 대중의 의견, 즉 대중이 집회 때 갖게 되는 의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혜라고 부르는 것 역시 대중의 의견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하고 힘센 짐승을 사육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이런 사람은 그 짐승의 기질과 욕구를 잘 연구해서 그 짐승을 가까이하거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어떤 경우에 가장 난폭하고 어떤 경우에 가장 유순한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알게 된다. 또한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를 지르는지, 반대로 어떤 소리를 내면 유순해지고 어떤 소리를 내면 사나워지는지 알게 된다. 그는 오랜 접촉을 거쳐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운 뒤 그것을 지혜라 부르며 하나의

기술로 체계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 하지만 그는 그 짐승의 취향과 욕구들 가운데 어느 것이 아름답고 추한지, 또는 좋고 나쁜지, 또는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지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서 오직 거대한 짐승의 반응과 결부시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 말하자면 그는 그 짐승이 좋아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 하고, 그 짐승이 싫어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 한다. 그는 이에 대해 달리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아름답다고 일컫지만,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의 본성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는 관찰한 적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도 없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라]의 ‘헌자’들은 대중들의 취향과 욕구, 즉 시대적 흐름에 영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지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이라 여기고, 대중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추함,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등의 본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로써 [나]~[라]의 태도를 비판하기**

[나]	주인공은 현실의 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기보다는 비현실적인 소설 속으로 도피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 외부 세계의 시련을 주체적 의지로 극복하려는 주체성이 없다.
[다]	그는 지식인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 주어진 현실의 고통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가는 제시문 [마]의 나무를 통해 이러한 지식인의 허위성을 비판할 수 있다.
[라]	‘헌자’들은 대중들의 취향과 욕구, 즉 시대적 흐름에 영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지식인일 뿐이다. -> 지식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결여한 채 대중과 영합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헌자’들은 비판받을 수 있다.

**답안 작성**

1문단	제시문 [마]는 겨울을 견뎌 내며 꽃을 피우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암울한 시대적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삶의 교훈을 드러낸 작품이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지상에 굳건히 뿌리박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대지를 밀어 올려 기필코 자기 몸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2문단	제시문 [나]에서 주인공은 책 속으로 망명한다. 그는 소설책을 읽으며 매혹적인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든다. 소설의 세계는 이야기와 현실이 전도된 가상의 세계이자, 외부 현실과 단절된 고립적이고 자족적인 공간이다. 주인공은 현실의 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기보다는 비현실적인 소설 속으로 도피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일종의 현실도피적인 지식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는 외부 세계의 시련을 주체적 의지로 극복하려는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3문단	제시문 [다]의 화자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뚜렷한 명분 없이 타자의 의견을 추종하는 지식인들의 천박한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는 지식인 사

	<p>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지식인 사회의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이른바 침묵을 전략으로 시류에 영합하는 현실추수적인 지식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어진 현실의 고통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가는 제시문 [마]의 나무를 통해 이러한 지식인의 허위성을 비판할 수 있다.</p>
<p><b>4문단</b></p>	<p>제시문 [라]의 ‘현자’들은 대중들의 취향과 욕구, 즉 시대적 흐름에 영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대중들이 선호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이라 여기고, 대중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추함,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등의 본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제시문 [마]의 나무는 부정한 시대적 현실에 영합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주체적 의지로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결여한 채 대중과 영합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현자’들은 비판받을 수 있다.</p>